차윤석 에게 보낼펴지..

내가 보다 보다 기가 막혀서 볼수가 없어서  이렇게 메일 쓰는 것이니 , 끝까지 읽고, 니가 한 짓이 어떤 것인지 좀 느껴봐.. 그리고 니가 할일이 뭔지도 좀 알고..우선 내 병원비... 아버지가 하루는 그냥 누나에게 보내주신다고, 영수증 같은거 필요 없다고, 그냥 얘기 하라고 하셨다가, 또 영수증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라고 난리를 치셔서, 등기로 보내드렸더니, 아직도 입금이 안되네.. 뿐만 아니라 내가 퇴원할때가 다 되가서 집을 구해야 한다고 하였더니, 하루는 집을 알아 보라 하셔서 알아보니, 다른날은 갑자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너 한테는 수십억의 건물과 땅을 상의도 없이 줘 버리시고... 이것만 봐도 들중 하나인데.. 아버지가 치매 시던가, 아니면 니가 못 보내게 하고 있던가.. 니 이상한 짓거리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 나를 뇌졸중에 의해 정신이 이상한 놈으로 몰 생각하는 병신 같은 짓 하지마.. 나를 진료한 의사들이 전부 다 정신은 극히 정상이라고 했으니.. 참고로, 그의사들은.. 알려 줄께; 서울 성모 신경외과 이관성, 한양대병원 신경과 김영수, 청담병원 재활의학과 김태곤, 분당 베스트병원 재활의학과 김보라, 니가 직접 물어봐.. 필요하면, 진단서 및 의사들 소견서를  경찰이든 어디든 보내줄게.. 그리고, 누나도 더이상 돈도 없고 더 이상은 나 돌볼수가 없데, 나도 이제 퇴원해야되고, 그래서, 이제 너좋아하는 법적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서울에 변호사들도 그게 맞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려도 니가 중간에서 자꾸 이상한 짓 하니, 그냥 너한테 바로 얘기 할께.. 여러 긴말 필요 없고.. 이번주 수요일까지 병원비 영수증 보낸 271만원 누나한테 보내, 그리고 수요일까지 여주 개뚝너머땅, 누나와 내 이름으로 증여 끝내시라고해, 그리고 예지, 누나, 나, 전화 차단 시킨 것, 전부 풀어놔.. 목요일 아침에 말한 것들 전부 확인하고, 한개라도 안되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래 글을 여러 곳으로 보낼거야.. 보낼 곳들; 동아대 이사장 정휘위 (이메일이 없어 우편으로 보낼거야, 여러곳 으로 보낼 것이니 한곳은 받겠지)., 동아대 총장, 동아대 경영대 학장 및 모든 교수들, 동아대 학생회, 중앙대 본교 및 안성캠퍼스 경영학과 교수들 및 학생회,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들 및 학생회, 청와대 국민청원, 교육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및 부산교구, 부산 마이너 및 메이저 신문사들, 그리고 위에 언급한 3학교들의 모든 SNS (학과에 상관 없이 모든 개인 SNS 포함)..

정도것 해야지.. 너는 도를 넘었어.. 이제는 내가 죽더라도 나서야 겠어.. 목요일 이른 아침에 위에 말한 것들 확인하고, 한개라도 안됐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위에 말한 곳으로 밑의 글 바로 전부 보낼거야.... 모든 건, 실명으로 할거고 , 물론 내 이름도....... 수요일까지 다 처리해.. 어떠한 이유도 이젠 필요 없고, 1초도 이제 안 기다려..

그리고 밑에 보낼 편지는 전부 예약 걸어 놔서 자동 발송되게 되니 시간 잘지켜...

보낼 글 내용..

저는 1년 반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다시 일어나 현재, 분당 베스트재활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 차민석 입니다.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차윤석 교수의 친동생이지요. 여러명의 의사가 진단 하기를 머리는 온전하나 오른쪽 편마비가 왔다고했습니다. 저 또한 은행 업무등 중요한일들은 제 의지로 아무 문제없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수가.. 그리고 동아대학 교수가.. 이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까? 동아대학교에서는 인성은 전혀 안보고 교수를 선발 하는가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군요.. 다름이 아니라,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라고 재직 중인 차윤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악독함을 보다 못해, 몸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상식적이고, 악독함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이 글은 다음의 곳들로 동시에 발송 시켰습니다;  동아대 이사장 정휘위 (이메일이 없어 우편으로 보낼거야, 여러곳 으로 보낼 것이니 한곳은 받겠지)., 동아대 총장, 동아대 경영대 학장 및 모든 교수들, 동아대 학생회, 중앙대 본교 및 안성분교 경영학과 교수들 및 학생회,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들 및 학생회, 청와대 국민청원, 교육부, 천주교서울대교구, 천주교부산교구, 부산 마이너 및 메이저 신문사들, 그리고 위에 언급한 4학교들의 모든 SNS (학과에 상관 없이 모든 개인 SNS 포함)..,

 차윤석은 중앙대 안성캠퍼스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박원우 교수 지도 하에 10년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1. 우선,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5개월후 전 뇌출혈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형이라는사람(차윤석)이 제가 서울성모병원 중화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며 열흘있었는데, 3일만에 아버지를 부산으로 모시고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서울에 집이 있었고, 둘봐주실 분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하기야, 차윤석이 앉아 하는 소리가 어머니 돌아가실 걸 알았으면 수술하는데 돈을 괜히 썼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2. 그리고는, 분당, 용인수지에 살고있는 나, 누나, 조카 (누나 딸) 를 아버지와 만나지도 못하게하고 수시로 전화번호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아버지께 안부를 물으 수 조차없게 하더군요.. 어쨌든  아버지를 윽박질러  전화를 강제로차단시켜 연락을못하게하고있습니다. 왜??  아버지 재산을 가로 채야 하니까..
3. 뿐만 아니라, 이사를하고도 모두에게 알려주지를 않은상태에 지난1년 외래 병원비 270만원을 누님이 아버지께 청구하였으나 보내주지도안고, 아버지가 전화를 무작정 못받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BMW을 몰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제 병원비를 못 주게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4. 또한, 지난 12월7일주에는 계속연락을했으나, 연락이 안돼.. 아버지 걱정에 혹시 동아대병원에 계신가 해서 원무과에 알아보니 입원해계시더군요.. 아버지 아프신것도 알려주지  않고 자신들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5. 이 모든것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하는 짓 이더군요. 제가 아픈때를 이용하여 형제들과 아무 상의도없이 아버지 재산 중의 일부인 건물을 가져갔더군요..
6. 남은 얼마안되는 재산은 제 병원비, 그리고, 누나와 제 생활비를 위해 남겨 두라 했더니, 아버지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도, 아버지 죽으면 남은것도 자기 몫이 또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바로 옆에 계신데 “죽으면” 이라니요.. 이게 대한민국 교수가 아버지께 대놓고 할수 있는 말인가요? 교수가 아니더라도 저런 소리를 아버지께 안하지요..
7. 작년에는 조카 (누님 딸)  약이 있다는데도 부모님 집 문 비밀번호를 갑자기 바꾸고, 안열어 주어 약조차도 못 가지고 가게 하더군요. 그곳에 약이있다고 해도 부모님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 아 알려주고, 문을 안 열어 주더군요..
8. 저한테는 또한, 뇌출혈 이후에 뇌출혈로 고생하는 동생더러 병신새끼라며, 병신을 병신이라하는게 어떠냐고말하더군요.. 이건 장애인 비하 발언 아닌가요? 이런말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무렇지 않게 할 말입니까? 장애를 가지게된 동생에게 아무렇지 않게 병신 이라니요?
9. 더더욱이 기가막힌것은 교수라는 작자가 자신보다 손위인 누나한테 찢어죽일년이라고 했다가 누나가 뭐라 말하니 붇혀죽일년으로 바꿔준다고하더군요.. 도대체 어느나라 어떤 교수가 자신 손위 누이에게 감히 저렇게 말한단 말입니까..도대체 이런 교수는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았고, 누구에게 이런거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박사학위를 10년을 했으니, 박사과정 중의 선생들이 이런거 가르쳤을까요??
10. 또한 부동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세금 적게 내기위해 각종 벽칙적인 방법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11. 그이 부인인 제 향수라는 사람은 더 가관이거군요.. 수녀원에서 나오고나서, 자신이전직 수녀쳤다고 떠벌리고, 다니더군요.. 그게 떠벌릴 일인가요?? 그리고, 성직자가, 수녀가 직업인가요? “전직 수녀” 라니...
12. 마지막으로 제 어린시절 부모님과 찍은 사진을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사이에 말도없이 전부 폐기해 버렸더군요.. 이로써 제 유년 시절 기억은 전부 없어졌네요.. 그런데, 왜??

이보다 더 심한 것들,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것들도 많으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교수라고 뽑은 학교는 뭘까요? 자신의 손위 누이에게 개 욕을 서슴없이하고, “아버지 죽으면” 이라는 말을 아버지 앞에서 서슴없이 할뿐만 아니라 장애를가진 동생에게 몸도 못쓰는 병신새끼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교수라는 것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군요.. 도대체 무슨이유로 이런 사람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뭘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는 걸까요???

위에 모든 사항에대해서는 고향인 여주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모든 친지분들과 서울 서초구 방배4동 모든 주민분들이 새생히 증명해 주실겁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한짓을 반성은 안하고, 고소하겠다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고소 하겠다는 걸까요?